

지역 메아리

완주 다문화가정 예비학부모교육

완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양이)가 다문화가정 중 초등 학교입학을 앞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비학부모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24일 완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8년 초등학교입학을 앞둔 학부모 20명을 대상으로 예비학부모교육을 실시해 자녀의 입학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교육했다.

다문화가정 예비학부모가 곧 다가올 자녀의 입학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입학 전 준비물, 초등학교 용어, 등교시 복장, 예비 학부모금증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입학 전 학부모가 학교생활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표정현 봉사초등학교 교사가 교육을 진행해 더욱 호응을 얻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집단상담 프로그램 수료식 개최

김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신미란)는 지난 23일 보건소3층 집단상담실에서 교육생 14명을 대상으로 2018 제1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수료식을 개최하였다.

제1기 집단상담은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직장적응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로 오리엔테이션과 직업카드를 활용한 직업 탐색 활동, MBTI 성격유형 검사, 피드백 및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았다.

특히 수강생들은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 성공사례를 청취한 후 재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했으며 자신을 피뎌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입을 모았다. /김제=곽노태 기자

경로당 순회 중풍예방교실 운영

김제시보건소(보건소장 김형희)에서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 순회 중풍예방교실'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중풍예방교실은 한의사가 직접 경로당을 방문하여 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상담과 진료로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초반에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기초검진을 통하여 건강상태를 파악한 후 침, 테이핑, 투약 등 개개인의 증상에 맞는 상담과 치료를 실시하고 중풍의 원인 및 전조증상 인지교육, 치매 예방과 신체단련을 위한 안마도인법 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뇌졸중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중동 남심마을 경로당을 시작으로 52개소 경로당에 주1회 5주간 연5기로 운영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축구메카 조성사업 기공식

축구장 5면·유소년 축구장 1면·유소년 클럽하우스 등 구축

민선6기 15만 자족도시 건설에 밑거름이 될 완주 축구메카 조성사업이 첫 삽을 떴다.

23일 완주군은 봉동읍 울소리에 위치한 전북현대모터스FC 클럽하우스 주차장에서 '완주 축구메카 조성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기공식에는 고재욱 완주부군수를 비롯해 백승권 전북현대모터스FC 단장, 정성모 완주군의회 의장,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장, 박재완 도의원, 최등원, 윤수봉, 최상철, 서남용, 이항자, 류영렬, 이인숙 완주군의회원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문정훈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장, 최강희 전북현대모터스 FC 감독, 김대은 전라북도축구협회장,

이동국, 신형민 전북현대모터스 선수, 기관단체장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조성사업 기공을 축하했다.

완주 축구메카 조성사업은 봉동읍 울소리에 위치한 전북현대모터스FC 클럽하우스 인근에 9만6498㎡ 부지에 축구장 5면, 유소년 축구장 1면, 유소년 클럽하우스 등 축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우선 1단계로 축구장 2면(인조잔디 1면, 천연잔디 1면)을 오는 2019년 2월까지 조성한다.

특히 완주군의 축구메카 조성은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 건설에 중요한 여가 문화 복지의 밑거름과 주민들의 축구에 대한 애정 및 관심이 증가로

축구의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재욱 완주부군수는 "그 동안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 속에 토지보상, 행정절차 이행 등 이 순조롭게 진행됐다"며 "현대자동차(주)의 투자가 있어 모든 이들의 축하 속에 기공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15만 완주시 건설은 소득도 중요하지만 이에 걸맞게 여가 및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종합 스포츠 타운, 야구장 등 체육시설을 확충해 주민들이 스포츠 활동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 수상

박성일 완주군수, 지역경제발전공로대상자 선정

박성일 완주군수가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을 수상했다. 23일 박성일 완주군수는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 언론인연합협의회 등이 주관하는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에서 지역경제발전공로대상자로 선정됐다.

군정비전으로 세우고 어른신복지, 미래세대 육성을 2대 핵심정책으로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테크노밸리의 성공적 분장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500원 으뜸택시 성공으로 교통복지 1번지 완주 실현, 공공급식 확대를 통한 로컬푸드 업그레이드 등의 성과를 달성하며 완주군을 '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 대한민국 으뜸 행복도시' 반열에 올려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은 매년 정치, 경제, 문화, 환경,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일반 및 공직 사회에서 귀감이 되는 사람들을 찾아 시상하고 있으며, 2018 시상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진행됐다. 박성일 군수는 민선 6기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 실현을 목표로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모บาย 완주, 모두가 행복한 삶의 질 르네상스 완주, 모두가 풍요로운 농업융성 농토피아 완주를 3대

박성일 군수는 "민선6기가 큰 성과를 올리고, 수상까지 이어진 것은 주민들의 성원과 직원들의 노력덕분이다"며 "특히 올해를 2025년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 완주시 실현을 위한 원년으로 삼으면 큰 계승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고, 변화되는 완주군의 모습을 기대해 달라"고 소감을 전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협력기관 협약식

김제시보건소-노인복지센터



김제시보건소(김형희)는 최근 김제 노인복지센터와 25개 보건진료전담공무원과 함께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협력기관 협약식을 가졌다.

이웃 어른신들과 함께하는 노인사회 활동지원사업(구 노인일자리사업)은 의료취약계층이 많은 지역 보건진료소에 노인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진료소에 인력을 파견받아 혼자서 근무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마음놓고 일할 수 있게됐다.

혼자서 근무하다보니 불안함과 또 1주일에 4~5회 지역마을에 출장 진료를 나가고 진료를 받기위해 찾아온 주민이 진료소장이 없어 불편이 있었는데 노인일자리사업을통해 지원받을 수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어느정도 해소 될 전망이다.

또한 참여하는 어른신은 경제적으로와 사회적일환으로 역할을 한다는 자존감을 심어주는 동시에 지역에 대

한 애정도 높아져서 보건진료소가 어른신들과 함께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를 참여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과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과 협약식을 갖는 자리에서 김제시보건소장(김형희)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본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과 더깊이 소통하고 협력하게 되었다며 어른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의 건강지킴이활동가로서 기대해본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이후천 김제시장 권한대행, 읍면동 건의사항 청취

이후천 김제시장 권한대행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민업무 수행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를 2월 22일부터 3월 7일까지 방문하여 읍면동 건의사항과 직원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22일 방문했던 민경읍과 성덕면에서 주요업무와 건의사항을 보고 받은 후

읍면동 직원을 격려하고 각종 대민업무를 묵묵히 수행해준 노고를 치하하였다.

이후천 김제시장 권한대행은 "대민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동에서부터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갈 때 우리시가 든든히 설 수 있다.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며, 읍면동장을 중심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지평선대학 졸업식 개최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는 지난 23일 농업인의 배움의 산실인 김제 지평선대학의 2017학년도 졸업식 및 2018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했다. 2017학년도 개설되었던 쌀가공 과정과 특용작물 과정 졸업생들은 20여회에 걸쳐 100여 시간의 학사과정을 뜨거운 배움의 열정으로 마무리 하고, 특용작물 과정의 조병욱, 쌀가공 과정의 김영식씨가 학장상을 수여하게 됐으며 백산면 이규병씨는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4기인 김제지평선 대학은 지역농업 발전에 열정을 가진 농업인을 대상으로 발효식품반과 친환경농업반을 모집하여 2개과정 108명의 입학생을 맞이한다.

친환경 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전문 농업 인력양성을 위한 친환경 농업반은 지속적 고품질 다수확을 위한 토양관리 및 유기자재를 활용한 친환경

방제, 손쉽게 만드는 친환경 자체 실습 등 이론과 전문기술의 체계화를 갖출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발효식품반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새소득원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장담그기, 효소를 만들기, 기능성 장, 발효식품 짓갈 담그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은 "농업의 실질적 이론과 현장체험학습 병행으로 특화된 교육과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